

편집장레터

NEWSTART



장재민 편집장

‘주인 없는 자전거 무덤, 곳곳에서 불편 호소’ 255호 2면 오른쪽에 작게 배치되어있는 저의 첫 기사입니다. 당시 조교 선생님의 첫 보도 기사 작성 임무에 글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저는 정돈되지 않은 중학생 수준 정도의 글을 적어냈습니다.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1면을 맡게 됐을 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 마감날 새벽까지 밤을 새워서 기사를 작성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에는 알아보기 힘든 수준의 긴 문장, 뒤죽박죽인 글의 흐름, 영양가 없는 인터뷰 질문까지. 편집장 피드백을 받은 제 글에는 온통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8개월 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편집장이 되어 기자들의 기사에 빨간 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학보사 내 사정으로서 제가 편집장의 자리를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편집장이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꺼렸습니다. 스스로 가한 조직의 장이라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릇이라는 걸 알기 때문

이었습니다. 3월 학보를 준비하면서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라는 마인드로 일단 무작정 부딪혔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슈는 앞뒤 안 가리고 저돌적으로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치 않는 회의자리에 끌려가기도, 교수에게 고소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전 더욱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멘탈을 지닌 후에는 언론인의 자세를 고민하고 학보 발전에 집중하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또한, 움츠러들었던 학생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학보가 총 8개. 드디어 마지막 학보를 발간했습니다. 한 해의 끝에 서서 지난 8개월을 돌아보니 많은 것이 변해있었습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끝과 시작’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선수들의 의지와 투혼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8강 진출 실패와 함께 벤투호는 운항을 종료했지만, 월드컵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한국 축구의 새출항을 알린 것이기도 합니다.

11월 28일 총장후보자선거, 12월 6일 총학생회선거의 종료는 곧 한국체육대학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문원재 총

장후보자는 안용규 총장이 이끈 한국체육대학교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요. 라온 총학생회는 위대유 총학생회의 의지를 어떻게 이어갈까요. 학교에는 여명(黎明: 희미하게 날아오는 빛)이 밝을지, 아니면 여명(餘命: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맞이할지 이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들의 공약과 목표, 그리고 다짐을 1면과 2면에 담았습니다.

6, 7면에는 1년 동안 우리 학교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전부 모아 ‘총정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는 의미있는 해였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학칙을 바꿈으로써, 학교에 대항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어봤습니다. ‘학생 권리와 발전’이라는 씨앗에 물을 준 셈이죠. 앞으로 이 씨앗은 점점 자라나 뿌리 깊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기사를 읽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학에서 언론의 담당자였던 저의 역할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잘 해 낸 것 하나 없었습니다만, 딱 하나. 학생 권리와 주체성을 끌어올리는 데 보탬이 됐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이 또한 저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죠. 학생회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기자들의 열정이 이 모든 걸 가능케 했습니다. 저는 일반 학생으로 돌아가지만, 2023년에도 학보사의 불을 꺼지지 않습니다.

기자석 I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



송유나 기자

720원. 내가 지하철 개찰구에서 카드를 대면 찍히는 요금이다. 이제 이 요금을 낼 날도 얼마 안 남았다. 10대의 끝자락, 나는 지금 청소년과 성인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다. 처음 10대에 들어설 때가 기억난다. 케이크 정중앙에 긴 초 하나만 꽂히는 것이 좋아 얼른 생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10살의 나. 20살을 코앞에 둔 지금은 무슨 감정일까. 케이크 위로 달려드는 건 달랑 긴 초가 하나가 추가되는 것뿐인데, 내 감정은 그리 간단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설렘과 동시에 따라오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나의 10대에 대한 아쉬움까지. 이 외에도 뭐라 정의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불쑥 밀려온다.

2022년은 특히 나에게 더욱 의미가 깊은 해였다. 마지막 10대, 첫 대학 생활, 첫 서울살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공존하며 나의 올해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었다. 처음 서울에서의 생활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뽀뽀는 지하철과 길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익숙사를 나서면 보이는 인위적인 풍경들. 같이 올라온 가족도, 친구도 없던 내가 혼자서 이런 급속스러운 변화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들이 일상이 됐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 그렇게 나는 많이 변했다. 무뎠고, 적응했으며, 굴복했다. 어릴 땐 분명 나는 다르리라고 다짐했던 것 같다. 세상 사람 모두 잘못된 길을 걸어도 끝까지 바른길로 걷겠다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소리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된다. 그런 시간을 거쳐 가면 처음 나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가기란 참 어려운 것 같다. 어릴 때 느꼈던 감정들과 다짐들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정작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참 씁쓸하게 느껴진다. 나 역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그냥 딱 그 정도의 어른이 된 것 같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내 모습이 더

두렵기도 하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무뎠질까. 얼마나 더 뻔뻔해질까.’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잃지 않고 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오는 기사를 볼 때마다, 불의의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드는 불편한 감정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저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이 작은 불씨를 키울 수 있는 20대가 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나는 매해 연말이 되면 한 해가 끝나간다는 아쉬움과 내년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에 대한 설렘으로 싱숭생숭한 날들을 보냈던 것 같다. 하지만 올해는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10대를 온전히 즐기지 못했다는 아쉬움, 더 이상 미성년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아쉬움, 변해버린 내 모습에 대한 아쉬움까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욱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기억은 추억이 된다. 설령 내 10대는 끝이 났지만, 이야기가 끝에 다다랐어도 지나온 페이지가 가득하니 아쉬움을 누른 채 마지막 장을 덮을 수 있다. 내 10대는 충분히 눈부셨고 앞으로 더 쓰일 이야기들이 많으니.

기자석 II

관심을 가져야 보이는 것들



박소영 기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란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이거나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한다. 슬로프 설치 등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기사는 최근 무릎 부상으로 많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어 조금 더 편한 슬로프(경사로)를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학교 슬로프 시설에 대한 궁금증을 품었다. 예상외로 학교에서 슬로프 시설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학교에 슬로프와 같은 ‘배리어 프리’ 시설이 무엇인지,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배리어 프리 시설의 이용자가 되자 그제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 학교의 슬로프는 몇 개나 될까? 본관은 강의실이 가장 많아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건물이다. 본관의 입구는 총 3개다. 그중 휠체어가 지날 수 있는 슬로프는 총 2개로, 좌측 합동강의실 앞 입구와 우측 연구실과 연결된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좌측 입구의 슬

로프 옆에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쓰레기통 등으로 부산하다. 또한, 주차장의 차에 가려져 슬로프의 존재조차 알아채기 쉽지 않다. 게다가 본관 내부를 다닐 수 있는 슬로프는 없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학생이 본관 내부를 이동할 방법은 엘리베이터 한 대뿐이다. 이마저도 잦은 고장과 많은 사용량으로 급한 상황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강의실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본관 3층의 멀티어학실 문을 열면 입구보다 한층 높아지는 턱이 있다. 만약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좁은 입구에서 멈춰 조심하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난관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멀티어학실의 자리는 좁은 통로로 되어 있어 걸어서 이동할 때에도 의자나 모니터에 걸리는 일이 잦다.

현재 동아리방이 있는 필승관은 어떻게 필승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중 슬로프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필승관 입구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이는 1층과 5층만을 이동할 수 있어 B1, 2, 3, 4층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있다. 필승관 바깥의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휠체어를 타고 필승관으로 이동하려면 먼저 본관 좌측 혹은 우측 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이후, 본관 3층 우측 계단 옆에 있는 본관과 필승관

사이의 통로를 이용해 필승관으로 이동해야 한다.

학생회관, 오피관, 승리관 모두 입구에 슬로프는 존재하지만, 건물 내부를 이동할 수 있는 슬로프는 없으며, 심지어 오피관과 승리관의 경우 건물 내의 엘리베이터조차 없어 무조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수체육교육과가 존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학교에서 배리어 프리 시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느꼈다. 또한, 학생들이 이에 대한 개선 요구나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의아함을 들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 하나 하나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것일까.

기사는 슬로프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사회가 통합되는 데 ‘관심’을 가지는 일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지적 수준과 삶의 질이 개선되며 개인의 능력과 평권이 높아진 요즘에는 특히 더하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우리 모두가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계속해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만큼의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 그 일은 작은 관심 한번, 관찰 한번, 생각 한번에서 시작된다.

기고문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2023년



송석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8

한국체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대학교 제44대 ‘위드유’ 총학생회장 송석입니다. 2021년 겨울 차디찬 바람을 맞으며 코로나 19로 한적한 캠퍼스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것이 그리 오래된 일 같지 않은데 벌써 한 해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3년 만의 대면 수업을 지나, 벌써 추운 겨울을 맞아 2022학년도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며 총학생회와 함께 한 학우 여러분의 2022년 대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그동안은 항상 대학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위주로 전해드렸지만,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솔직한 저의 마음속,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2018년 입학 이후 대학 본부로부터 겪은 불합리함은 짧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 학우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시킨 로고 원복, 인터넷 기사로 접해야 했던 한국체육대학교 진천 캠퍼스 이전에 관한 논란 등 대학 본부의 구성원 동의 없는 결정과 소통 방식은 우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에 분노했지만, 그 누구도 앞에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대응하지 않는 총학생회를 적절히 비판이 아닌 무분별하게 비난하기 바빴으며, 몇몇 우리가 나서자는 글을 제외하고는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 역시도 출마를 결심하기 쉽지 않았지만, 누구

도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하는 거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임기를 시작하며 제가 항상 다짐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지금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저에게 많은 무게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1년이 끝났을 때, ‘총학생회장’이라는 이력서 한 줄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하는 것만, 필요한 것만 하고 무색무취인 총학생회장으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장 임기 내 내 늘 무언가를 할 때마다 “무엇을 바라고 왜 그렇게까지 하나.”라는 소리를 귀가 달도록 들었습니다. 한 학기 고작 40만 원의 장학금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총학생회장 한 줄의 스펙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평생토록 못 해볼 경험하기에 한 번 하는 거 모든 것을 걸고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학우 여러분의 믿음도 결과도 따를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책이있는 곳은 뿌리도 흔들면 흔들립니다.” 올해 첫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들은 말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왜 해?”라는 말을 듣고, 저는 곧장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동안은 같은 생각을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책은 뿌리는 곧 흔들렸습니다. 임기 시작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된 2월, 대학 본부에 수강신청 문제와 학사운영 방식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학생요구안을 전달해 유의미한 답변을 받았으며, 3월에는 기숙사 교내외출 전면 승인과 대각선 식사 방식 폐지시켰고, 5월에는 실기/실습과목에 대한 대면 수업을 철회시켰습니다. 또한, 비민주적인 학칙

을 개정함과 동시에 개교 이래 최초로 대학 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총학생회 주관 총장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총장후보자 선거에서 학생 투표 비율을 기존 5%에서 9%로 약 2배 증가시킨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3년 만에 진행된 ‘천마 체육제’를 어느 때보다 학우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마쳤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공식 학생자치기구 제정, 제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설, 총학생회장단 단독 선거 시 무투표 당선 조항 개정 등 우리 대학의 학생사회에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썩어있는 공은 뿌리도 우리가 흔들기 나름인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논리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학우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참여로부터 시작되며, 올해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키워나갈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질 한국체대를 기대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 한 명 참여한다고 달라질까?”, “불만 있으면 내가 해.”라는 확고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먼저 작은 관심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참여로 한 걸음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2023년에는 잠시 쉬어가려 합니다. 충분히 혼신을 다해 힘써왔고 이제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힘쓸 수 있게끔 물러나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멀리서 학생사회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한 명의 학우로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한 명의 대표자이지만, 훗날 학우 여러분께서 총학생회를 되돌아봤을 때 제 손길이 닿았던 행사 또는 사업을 기억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멀리서나마 학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체육대학보 <http://news.knsu.ac.kr>

발행인 | 안용규 주 간 | 허진석 기 획 | 김세준 편집장 | 장재민

기 자 | 이종원·김규태·한지용·기민정·김수빈·방지혜·송유나·박소영·권규태·박서진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필승관 B106호

전 화 | (02)410-6556